《한말연구》 제64권 44호(2023. 10), 한말연구학회
DOI : https://doi.org/10.16876/klrc.2023..64.44
ISSN : 2799-8983

섬진강 유역 방언의 말소리와 변이*

- 단모음의 체계와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

하 영 우

차 례

1. 서론
2. 연구 방법
3. 섬진강 유역의 단모음 체계와 공간 구조 변이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실험음성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단모음 체계와 공간 구조의 변이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전남 구례군과 광양시, 경남 하동군의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문장 발화 자료를 구축한 후 단모음 체계와 모음 공간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방언 변화의 주요 변수인 세대와 성별의 영향 관계도 함께 검토하였다.

전남과 경남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은 도계(道界)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두 방언권이 맞닿는 전이지대이기도 하다. 전남 구례와 광양, 경남 하동으로 구성된 섬진강 하류 일대는 이전 시기부터 시장권과 통혼권, 통학권 등 생활 권역을 공유하며 전형적인 전남·경남 방언과는 다른 독특한 방언 체계를 구축하였다(김희수·서상준 1983, 김재문 1984, 기세관 2004).[1] 섬진강 유역의 방언 특성 중 음운 영역은 자음과 모음 체계, 운소, 억양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었는데, 그중 단모음 체계에 관한 논의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방언 접경 지역의 단모음 체계가 일반적인 전남·경남 방언과 갖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섬진강 유역의 단모음 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는 하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ㅟ/와 /ㅐ

* 이 연구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202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통학권의 공유는 광양시 다압면에 해당한다. 다압면은 면 소재 고교가 존재하지 않아 면 단위를 넘어 고교 진학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달리 50~60대 노년층은 거리가 가까웠던 하동읍 소재 고교로 진학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광양과 하동은 도(道)가 다르지만 당시의 교통 여건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 단위 경계를 넘어선 진학을 허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 변별, /ㅡ/와 /ㅓ/의 구분, /ㅟ/와 /ㅚ/의 단모음 설정 여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ㅔ/, /ㅐ/는 전남·경남 방언권에서 /E/로 합류되어 변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섬진강 일대는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두 모음이 구분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영송 1981, 김재문 1977, 이승재 1980, 서주열 1981, 김희수·서상준 1983, 김재문 1984, 이기갑 1984, 김택구 1991, 위평량 2000, 위평량 2005, 김정대 2000, 기세관 2004, 국립국어원 2011, 김정대 2012, 김봉국 2011, 김동은 2015, 하영우 2019). 다만 어느 방언권이 그렇듯 섬진강 유역 역시 /ㅔ/, /ㅐ/ 변별은 주로 노년층에게서만 관찰되며, 젊은 세대로 갈수록 변별 음소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2] 즉, 섬진강 유역의 /ㅔ/, /ㅐ/는 세대를 변수로 한 변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ㅔ/, /ㅐ/의 변별 여부는 섬진강 유역 전역에 적용되는 데 비해 /ㅡ/, /ㅓ/의 구분은 하동 지역에 국한된다. 전남 방언에서 /ㅡ/, /ㅓ/의 변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데 비해 경남 방언은 지역과 관점에 따라 두 모음의 변별 여부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경남 방언은 일반적으로 /ㅡ/와 /ㅓ/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경남 방언권을 동부와 서부 혹은 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하여 볼 경우 하위 방언권에 따라 두 모음의 변별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하동을 포함한 경남 서부 지역은 /ㅡ/와 /ㅓ/가 변별적 음소로 설정이 되기도 한다(김재문 1977, 서주열 1981, 김봉국 2011). 김봉국(2011)은 전남 구례·광양과 경남 하동 지역을 대상으로 음운 체계 전반을 살펴보았는데, '글:걸, 은어:언어, 들어:덜어, 늦는:넣는'의 'ㅡ:ㅓ'대립 분석 결과 세 지역 모두 두 모음의 대립 인식이 분명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하동 지역의 /ㅡ/와 /ㅓ/가 비변별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김영송 1981, 김택구 1991, 김정대 2000, 국립국어원 2011, 김정대 2012, 김동은 2015). 하동 지역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 김정대(2012)는 이 지역에서 /ㅡ/, /ㅓ/ 대립이 음성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음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ㅟ/와 /ㅚ/는 단모음 설정 여부가 핵심이 되는데, 지역이나 세대를 변수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구례와 광양 지역에 관한 초기 방언 연구에서는 /ㅟ/, /ㅚ/가 그 어느 지역보다 단모음으로서 지위를 뚜렷히 가진다고 기술되었으나(이승재 1980, 이기갑 1984, 김희수·서상준 1983),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두 모음이 차츰 음소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한다. 김봉국(2011)은 /ㅟ/, /ㅚ/가 구례 지역에만 온전히 단모음으로 남아 있으며, 광양 지역은 약화 과정을 보인다고 하여 두 모음의 변화가 하위 지역에 따라 변화 속도가 다름을 시사했다. 하동 지역은 구례나 광양과 달리 /ㅟ/, /ㅚ/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김영송 1981, 김재문 1977, 김봉국 2011, 김정대 2012, 김동은 2015), 간혹 단모음으로 발음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국립국어원 2011).

이처럼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단모음 체계는 주요 모음 대립과 단모음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고찰을 통해 그 목록과 방언적 특성이 명료하게 기술되었다. 다만 단모음의 목록과 별개로 단모음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차이나 모음 공간 구조적 특성에 관한 직접적 분석은 현재까지 수행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하동 지역은 일반적인 경상 방언과 달리 /ㅡ/, /ㅓ/가 변별되며, 접경 지역 모두 /ㅔ/, /ㅐ/가 구분된다고 하였으나 모음 간 대립을 산출 측면에서 직접 분석한 논의는 찾

2) 김동은(2015)는 하동 지역의 /ㅔ/, /ㅐ/ 구분이 70대 이상은 가능하나 50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지역적 요인보다는 세대 변수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하영우(2019)는 구례 지역의 노년층은 /ㅔ/, /ㅐ/의 모음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데 비해 청소년층은 두 모음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하였다.

아보기 힘들다. 또한 세대를 주요 변수로 한 단모음 체계의 변화와 공간 구조 변이가 수도권은 물론 전국 방언권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섬진강 유역 방언권은 이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ㅓ/의 후설저모음화나 /ㅡ/의 전방화, /ㅜ/와 /ㅗ/의 전후설 대립으로의 변이 같은 모음 공간 구조의 변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남·경남 전이지대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극히 적다(Kang 2014, 신우봉 2015, 이향원 외 2017, 하영우 2019, 이나라 2023).

이에 본고에서는 실험음성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의 단모음 체계와 모음의 공간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세대와 성별 변수가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단모음 체계와 음성적 변이에 작용하는 양상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전남·경남 접경지대의 단모음 체계와 특성을 음성적 차원에서 실증하고, 방언의 변이의 양상과 변화 방향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2. 연구 방법

섬진강 유역의 단모음 체계와 모음의 공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의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문장 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3] 피험자는 세대(노년층, 청소년층)와 성별(남성, 여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18~20명씩 총 57명을 모집했다. 구례 지역 피험자는 노년층 10명(남:여 = 5:5)과 청소년층 10명(남:여 = 5:5)으로 총 20명이었다. 구례 노년층은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와 토지면 구산리 일대에 거주하는 60~70대였으며, 구례 청소년층은 모두 구례읍에 거주하는 구례읍 소재 고교생이었다. 광양 지역 피험자는 총 19명이었으며, 노년층 9명(남성 4명, 여성 5명)과 청소년층 10명(남:여 = 5:5)이 실험에 참여했다. 광양 노년층의 연령은 50대 후반 ~ 60대였으며, 다압면 다사리 일대의 거주민이었다. 광양 청소년층은 진상면에 위치한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으며, 피험자의 거주지는 모두 광양시 중마동이었다.[4] 마지막으로 하동 지역 피험자는 노년층 8명(남:여 = 4:4)과 청소년층 10명(남:여 = 5:5)으로 총 18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하동 노년층은 50~60대였으며, 거주지는 하동읍과 악양면 평사리 일대였다. 하동 청소년층은 하동읍 소재 고교 재학생이었으

3)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모두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나 노년층은 군 복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해 타 지역에서 2~5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아울러 노년층과 대비되는 세대를 20대 이상의 청년층이 아닌 청소년층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 이동과 관련한 통제를 위해서였다. 섬진강 유역의 지역적 특성상 20대 이상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타 지역 이주 경험이 존재하는 데 비해 고교생은 타 지역 이주 경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4) 구례, 하동과 달리 광양은 조사 지역인 다압면에 소재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부득이 다압면에서 가장 가까운 진상면 소재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청소년층의 거주지가 모두 광양시 중마동이었다. 다압면과 중마동은 모두 광양에 속하지만 각각은 면 단위 소재지와 시 직속 소재지이기에 생활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두 지역 간 최단 거리 역시 약 25km로 가깝지 않다. 무엇보다 문장 산출 실험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 다압면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대부분 자신의 말이 전남 방언과 경상 방언이 뒤섞여 있다고 답한 데 비해 청소년층은 자신의 말이 전남 방언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는 광양의 하위 지역에 따라 방언 인식과 방언 사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다압면 내에서 직접 고교생 피험자를 섭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다압면에 소재한 유일한 중학교의 전교생이 약 20명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다압면에 거주 중인 고교생이 충분하더라도 대부분 진상면을 비롯한 광양시청 인근으로 통학 내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다압면 노년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기도 힘들다. 이에 광양 지역은 조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세대 간 비교에 있어 구례나 하동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며, 거주지는 하동 노년층과 동일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조사자가 설명한 실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였으며,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위해한 사항은 없었다.

섬진강 유역의 단모음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문장 낭독 발화 형식으로 구축하였다. 실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표 1>처럼 단모음별 실험 단어를 먼저 선정하였다. 실험 단어는 단모음별로 5개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어두 위치에 목표 모음이 오게 하였다. 다만 /ㅔ/와 /ㅐ/, /ㅟ/와 /ㅚ/, /ㅡ/와 /ㅓ/는 섬진강 유역 방언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명료히 파악하기 위해 다른 모음과 구성을 달리했다. /ㅔ/와 /ㅐ/는 두 모음의 변별 여부에 초점을 두어 '게:개', '떼:때', '베:배' 등과 같은 최소대립쌍을 포함하였으며, '가게, 조개, 찌개' 같은 비어두 위치 단어도 배치하였다. /ㅟ/, /ㅚ/는 초성 자음 선행 여부와 어두 위치 여부 조건을 고려하여 '위쪽, 외가' 외에 '귀, 괴물'이나 '사마귀, 파괴' 같은 단어도 선정했다. /ㅡ/와 /ㅓ/는 어두 위치 단어만 선정하되 하동 지역에서 두 모음을 변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은어:언어', '은행:언행' 등과 같이 최소대립쌍 구성도 넣었다.

<표 1> 실험 단어 목록

유형			단모음	실험 단어
전설	평순	고모음	/ㅣ/	이마, 이름, 이불, 이모, 이제
		중모음	/ㅔ/	에누리, 게, 떼, 베, 세다, 떼다, 가게
		저모음	/ㅐ/	애기, 개, 때, 배, 새다, 때다, 조개, 찌개
	원순	고모음	/ㅟ/	위쪽, 위암, 위험, 귀, 쥐, 바위, 생쥐, 사마귀
		중모음	/ㅚ/	외가, 외할머니, 외삼촌, 괴물, 죄인, 시외, 무죄, 파괴
후설	평순	고모음	/ㅡ/	은어, 은행, 은인, 은혜, 은하수, 들었다, 늦는다
		중모음	/ㅓ/	언어, 언행, 어제, 어둠, 어머니, 덜었다, 넣는다
		저모음	/ㅏ/	아들, 아기, 아내, 아직, 아버지
	원순	고모음	/ㅜ/	우물, 우리, 우박, 우비, 우산
		중모음	/ㅗ/	오늘, 오누이, 오직, 오징어, 오줌

선정된 실험 단어는 '은어가 떼를 지어 다닌다.', '가을에는 밤과 배를 수확했다.'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5] 실험 문장은 filler를 포함하여 총 65개로 구성하였으며, 낭독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 단문 형식으로 꾸렸다. 문장 낭독 실험은 외부 소음이 통제된 조용한 실내, 교실, 차량 내부에서 진행되었다. 문장 낭독은 총 2회 반복했으며, 실험 문장 내 목표 단어를 잘못 읽거나 피험자가 다시 읽기를 요청할 경우 해당 문장만 재낭독했다. 녹음 기기는 Shure사의 MV88 Plu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MOTIV(ver.3.7.1.50)를 사용했으며, 보조 녹음기는 TASCAM DR-44W였다. 녹음은 표본추출률 44,100Hz, 양자화 16bit로 설정했다. 실험 종료 후 문장 낭독 자료는 Praat를 기반으로 TextGrid를 생성한 후 '문장 발화'와 '단모음 측정'의 두 층렬로 나누어 레이블링하였다.

단모음 분석은 크게 /ㅟ/, /ㅚ/와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로 나누어 진행했다. /ㅟ/, /ㅚ/는 음성 자료 청취와 스펙트로그램의 전이구간 관찰을 통해 단모음 실현 여부를 판정하였다. /ㅟ/, /ㅚ/가 전설 원순 단모음으로 실현된 경우는 '단모음'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발음형을 '단모

5) 실험 문장 내 목표 단어의 발화 환경을 온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틀 문장 형식이 적정하겠으나 단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자칫 발화의 부자연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문장 형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음 측정' 층렬에 레이블링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의 /ㅟ/, /ㅚ/ 발음형 1,791개를 확보했다(실험 단어 16개 × 피험자 57명 × 2회 반복 - 발음 오류 33개= 1,791개). 다음으로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는 안정구간을 레이블링한 후 Praat 스크립트를 이용해 중앙 지점의 포먼트를 자동 측정하였으며, 자동 측정 오류로 판단되는 토큰은 연구자가 수동을 재측정하였다. 단모음의 수동/자동 포먼트 측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R(ver.4.3.1)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이상치 제거(Tukey 1977)와 포먼트 값의 정규화(사용 패키지: phonR)를 수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5,338개의 단모음 포먼트 자료를 확보했다(실험 단어 49개 × 피험자 57명 × 2회 반복 - 이상치 및 발음 오류 248개 = 5,338개). 단모음 자료의 통계 처리는 R 기반의 혼합효과 회귀분석(mixed-effects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Winter 2019, 이향원 2021), 통계 분석에 사용한 패키지는 lme4, lmerTest, emmeans, merTools였다.

3. 섬진강 유역의 단모음 체계와 공간 구조 변이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단모음에 관한 논의는 /ㅟ/, /ㅚ/의 단모음 설정 여부와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의 모음 간 변별 및 공간 구조의 변이로 대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세대와 성별을 주요 변수로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을 살펴본 후 두 모음이 갖는 음운론적 지위와 방언 변화에 대해 먼저 논의하겠다. 이어 구례, 광양, 하동 지역 순으로 /ㅔ/와 /ㅐ/ 변별, /ㅡ/와 /ㅓ/의 구분, 그리고 /ㅜ, ㅗ, ㅡ , ㅓ/의 모음 공간 구조에 관한 음성적 차원의 변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ㅟ/, /ㅚ/ 발음 양상과 단모음 체계의 변화

섬진강 유역 방언 중 전남 구례 지역은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매우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례 지역의 음운 체계에 관한 초기 연구인 이승재(1980:10-14)은 이 지역의 /ㅟ/, /ㅚ/가 강한 원순성을 갖고 /ㅣ/, /ㅔ/보다 조금 내려온 위치에서 발음되며, 중부 방언에 비해 단모음으로서의 성격이 명료하다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김봉국(2011) 역시 구례 지역은 /ㅟ/, /ㅚ/가 강한 원순성을 가진 단모음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전남 방언은 대부분 /ㅟ/, /ㅚ/가 단모음 체계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구례 지역은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유지되는 것은 방언권 내 지리적 위치와 관계된다. 전남 방언은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남 서부와 달리 동부 지역은 개신파 도달이 상대적으로 늦다. 구례 지역은 동부 지역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이로 인해 여타의 전남 하위 방언권과 달리 단모음 /ㅟ/, /ㅚ/의 존속 시기가 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수행한 문장 발화 실험 결과, 구례 지역은 세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ㅟ/, /ㅚ/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표 2> 구례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단위: 개)

지역		구례				유형 합계	총 합계
세대		노년층		청소년층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ㅟ/ 발음형	단모음 /ㅟ/	0	4	0	0	4	320
	이중모음 /ㅟ/	3	1	47	47	98	
	단모음 /ㅣ/	77	75	33	33	218	
/ㅚ/ 발음형	단모음 /ㅚ/	1	2	0	0	3	320
	이중모음 /ㅞ/	7	6	42	48	103	
	단모음 /ㅔ/	69	72	38	32	211	
	이중모음 /ㅖ/	3	0	0	0	3	

<표 2>는 구례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을 세대와 성별별로 제시한 것이다. 구례 노년층은 ‘{위험}[이험], {귀}[기], {바위}[바이]’와 같이 /ㅟ/를 /ㅣ/로 발음하는 비율이 전체 95%(152개)였으며, /ㅟ/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은 각각 2.5%(4회)밖에 되지 않았다. /ㅟ/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단어는 {위쪽}(3회), {위험}(1회)으로 모두 어두 위치에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환경이었다. 구례 청소년층은 /ㅟ/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노년층과의 차이는 /ㅟ/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비율(58.8%, 94회)이 단모음 /ㅣ/로 발음하는 비율(41.3%, 66회)에 비해 높다는 점뿐이었다.

/ㅟ/와 마찬가지로 /ㅚ/ 역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구례 노년층은 /ㅚ/를 ‘{외삼촌}[에삼촌], {죄인}[제인], {무죄}[무제]’와 같이 단모음 /ㅔ/로 발음하는 비율이 88.1%(141회)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모음 /ㅞ/로 발음하는 비율이 8.1%(13회)로 그 뒤를 이었다. 노년층이 /ㅚ/를 단모음으로 조음한 비율은 1.9%(3회)였으며, 해당 단어는 /ㅟ/와 동일하게 어두 위치에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외가}였다. 이 외에 예외적으로 ‘{외할머니}[예할머니]’처럼 /ㅚ/를 이중모음 /ㅖ/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다.[6] 구례 청소년층은 /ㅟ/를 단모음으로 발음한 경우가 없었고, /ㅟ/를 이중모음 /ㅞ/로 발음하는 비율(56.3%, 90회)이 단모음 /ㅔ/ 발음하는 비율(43.8%, 70회)보다 높다는 점이 노년층과 다를 뿐이었다.

구례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은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체계 내에서 이탈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의 진척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개별 화자나 단어 혹은 발화 환경이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서 /ㅟ/, /ㅚ/가 단모음으로 강하게 존속되는 유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한적 조건에서만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ㅟ/, /ㅚ/를 다른 단모음과 동질적 차원에서 하나의 체계로 묶어 다루는 것은 깊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구례 지역의 /ㅟ/, /ㅚ/는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 변화는 노년층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하영우 2019 참조). 구례 노년층은 /ㅟ/, /ㅚ/가 일부 단모음으로 조음되는 것을 통해 ‘단모음 > 이중모음’으로의 변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례 청소년층은 처음

6) /ㅚ/를 [ㅖ]로 발음하는 사례는 구례뿐만 아니라 광양과 하동 지역 노년층에게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년층 화자가 {외할머니}, {외삼촌}, {시외}를 발음할 때만 나타나 주로 GV 구조에서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ㅚ/를 [ㅖ]로 발음하는 것은 해당 모음을 이중모음 [ㅔ]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발음 오류로 추정된다. 노년층 피험자는 애초 [ㅔ]를 조음하고자 하였으나 이 지역은 [ㅔ]를 대개 반모음이 탈락한 [ㅔ]로 발음하는 만큼 이중모음 조음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ㅔ]가 아닌 [ㅖ]로 잘못 조음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추정이 맞다면 발음 오류형이므로 제외해야겠으나 해당 발음형에 대한 해석은 이론의 여지가 있으므로 함께 제시하여 둔다.

부터 /ㅟ/, /ㅚ/가 단모음 체계 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노년층과 달리 두 모음의 변화를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례 지역의 /ㅟ/, /ㅚ/는 노년층에 한해 '단모음 > 이중모음'의 변화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7)

구례와 함께 전남 방언권에 속하는 광양 역시 /ㅟ/, /ㅚ/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광양을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은 전남 서부 지역에 비해 방언 변화에 있어 보수적이기 때문에 /ㅟ/, /ㅚ/가 그 어느 지역보다 뚜렷하게 단모음 음소로 존재한다고 하였다(김희수・서상준 1983, 기세관 2004). 다만 최근의 조사에서 광양 지역의 /ㅟ/, /ㅚ/는 구례 지역에 비해 원순성 등의 약화가 관찰된다고 하여 변화의 조짐이 보고되기도 했다(김봉국 2011). 그런데 광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ㅟ/, /ㅚ/의 발음 양상을 살펴본 결과 두 모음은 약화 과정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구례 지역과 동일하게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광양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

지역		광양				유형 합계	총 합계
세대		노년층		청소년층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ㅟ/ 발음형	단모음 [ㅟ]	0	2	0	0	2	304
	이중모음 [ㅟ]	22	27	46	52	147	
	단모음 [ㅣ]	42	52	33	28	155	
/ㅚ/ 발음형	단모음 [ㅚ]	0	1	0	0	1	303
	이중모음 [ㅙ]	20	31	54	48	153	
	단모음 [ㅔ]	43	45	26	32	146	
	이중모음 [ㅞ]	1	2	0	0	3	

<표 3>은 광양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광양 노년층은 /ㅟ/를 주로 /ㅣ/(64.8%, 94개)나 이중모음 /ㅟ/(33.8%, 49개)로 발음하였으며, /ㅟ/를 단모음으로 발음한 사례는 2개(1.4%)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광양 노년층이 /ㅚ/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사례는 1개(0.7%)밖에 되지 않았으며, /ㅚ/는 주로 단모음 /ㅔ/(61.5%, 88개)나 이중모음 /ㅞ/(35.7%, 51개)로 발음하였다. 광양 노년층이 단모음으로 발음한 /ㅟ/, /ㅚ/는 {위쪽}, {위험}, {외할머니}로 구례 노년층과 동일하게 모두 GV 구조를 갖는 어두 위치 단어였다. 광양 청소년층은 /ㅟ/, /ㅚ/를 단모음으로 발음한 경우가 없었다. 광양 청소년층은 /ㅟ/를 이중모음 /ㅟ/(61.6%, 98개)나 단모음 /ㅣ/(38.4%, 61개)로만 조음하였으며, /ㅚ/ 역시 이중모음 /ㅞ/(63.8%, 102개)나 단모음 /ㅔ/(36.3%, 58개)로만 발음했다. 세대에 따른 광양 지역의 /ㅟ/, /ㅚ/ 발음 차이는 두 모음의 단모음 조음 여부에 있다기보다는 /ㅟ/와 /ㅚ/를 이중모음으로 실현하는 비율이 주요했다.

광양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은 구례 지역과 다르지 않다. 광양 지역 노년층은 /ㅟ/, /ㅚ/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 이중모음 /ㅟ/, /ㅞ/나 이중모음 /ㅟ/, /ㅞ/에서 반모음이 탈락한 단모음 /ㅣ/, /ㅔ/로 발음한다. 구례와 광양 지역의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ㅟ/, /ㅚ/의 변화는 예견 가능한 결과로 생각된다. /ㅟ/, /ㅚ/가 제한적 환경에서만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

7) 이와 같은 해석의 방향은 광양, 하동 지역 청소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광양, 하동 지역 청소년층은 /ㅟ/, /ㅚ/를 단모음 체계 내에 설정한 적이 없으므로 노년층과 달리 두 모음은 변화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 서부 일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손희하・위평량 2001, 김경표 2013, 하영우・신우봉 2018, 하영우 2019), 구례와 광양 지역에 인접한 전남 동부의 순천 지역(서성원 2002, 하영우 2018)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은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개신파 도달이 상대적으로 늦지만, /ㅟ/와 /ㅟ/가 단모음 체계 내에서 이탈하는 변화는 전이지대인 구례와 광양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8)]

한편 하동 지역은 구례나 광양과 달리 /ㅟ/, /ㅚ/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국립국어원 2011, 김봉국 2011, 김정대 2012, 김동은 2015). 본고의 실험 결과에서도 하동 지역은 세대와 관계없이 /ㅟ/, /ㅚ/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경우가 없었다.

<표 4> 하동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

지역		하동				유형 합계	총 합계
세대		노년층		청소년층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ㅟ/ 발음형	단모음 [ㅟ]	0	0	0	0	0	272
	이중모음 [ㅟ]	20	46	32	47	117	
	단모음 [ㅣ]	44	34	32	33	155	
/ㅚ/ 발음형	단모음 [ㅚ]	0	0	0	0	0	272
	이중모음 [ㅙ]	18	55	32	48	123	
	단모음 [ㅔ]	46	25	32	32	146	
	이중모음 [ㅞ]	0	0	0	0	3	

<표 4>는 하동 지역의 /ㅟ/, /ㅚ/ 발음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하동 노년층은 /ㅟ/를 단모음 /ㅣ/(69.5%, 89개)와 이중모음 /ㅟ/(30.5%, 39개)로만 발음하였다. 하동 청소년층 역시 /ㅟ/를 단모음 /ㅣ/(45.8%, 66개)와 이중모음 /ㅟ/(54.2%, 78개)로만 발음하였으며, 이중모음 발음 비율이 노년층에 비해 높다는 차이만 있었다. /ㅚ/도 /ㅟ/와 다르지 않았다. 하동 노년층은 /ㅚ/를 주로 단모음 /ㅔ/(69.5%, 89개) 혹은 이중모음 /ㅙ/(28.1%, 36개)로 발음했으며, 예외적으로 /ㅚ/를 /ㅞ/로 조음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2.3%, 3개). 하동 청소년층은 /ㅚ/를 단모음 /ㅔ/(39.6%, 57개)와 이중모음 /ㅙ/(60.4%, 87개)로만 발음했으며, 이중모음 발음 비율이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만 달랐다. 따라서 구례, 광양 지역은 노년층에 한해 /ㅟ/, /ㅚ/의 변화가 관찰이 되지만 하동 지역은 세대와 관계없이 /ㅟ/, /ㅚ/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모음의 변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섬진강 유역 방언권 중 /ㅟ/, /ㅚ/의 변화와 관계된 곳은 구례와 광양이다. 구례와 광양은 이전 시기 /ㅟ/, /ㅚ/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조음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 구례, 광양 지역의 /ㅟ/, /ㅚ/는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체계 내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진척도는 매우 높다. 다만 /ㅟ/, /ㅚ/에 관한 음운론적 변화는 두 모음을 단모음으로 갖고 있었던 노년층에게만 해당된다. 구례, 광양 지역의 청소년층은 /ㅟ/, /ㅚ/가 애초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변화에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하동 지역은 구례, 광양과 달리 모든 세대에게서 /ㅟ/, /ㅚ/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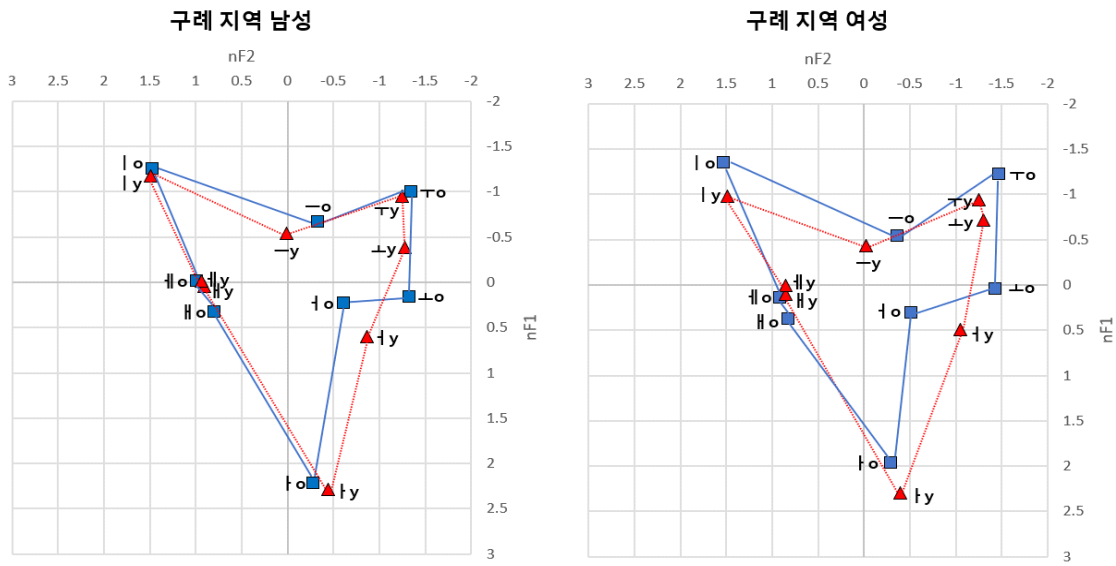
8) 구례와 광양 지역의 방언 지리적학적 특성상 /ㅟ/, /ㅚ/의 변화는 경남 서부 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경남 서부 지역의 /ㅟ/, /ㅚ/가 구례, 광양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차후의 연구에 기대기로 한다.

3.2. 단모음의 변별과 공간 구조 변이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단모음 체계는 모음 간 변별 같은 음운론적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음의 공간 구조 같은 음성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음운론적 차원의 변화는 섬진강 일대의 방언권에 모두 적용되는 /ㅔ/, /ㅐ/의 구분과 하동 지역에만 적용되는 /ㅡ/, /ㅓ/의 변별로 분류된다. 음성적 차원의 단모음 변이는 /ㅜ/, /ㅗ/의 전후설 대립과 /ㅓ/의 후설 저모음화, 그리고 /ㅡ/의 전설화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섬진강 유역 단모음의 음운론적 변화와 음성학적 변이를 구례, 광양, 하동 지역순으로 살펴보되 세대와 성별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2.1. 구례 지역

구례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ㅟ/, /ㅚ/를 제외하면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의 8모음 체계로 설정된다. 전남 방언은 이른 시기 '/ㅔ/, /ㅐ/ > /E/'의 합류로 인해 /ㅔ/, /ㅐ/가 구분되지 않지만 구례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개신파 도달이 늦어 두 모음의 변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언 변화에 의해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잃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ㅔ/, /ㅐ/의 변별은 현재까지 구례 지역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세대	성별	포먼트	단모음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구례	노년층	남	F1(Hz)	261	426	471	338	459	725	290	449
			F2(Hz)	2151	1909	1816	1244	1100	1263	725	736
		여	F1(Hz)	343	573	609	465	598	856	364	561
			F2(Hz)	2527	2168	2111	1412	1322	1454	759	780
	청소년층	남	F1(Hz)	308	471	465	394	543	764	340	416
			F2(Hz)	2196	1898	1916	1438	991	1209	793	780
		여	F1(Hz)	401	560	546	480	619	886	407	442
			F2(Hz)	2760	2339	2339	1736	1043	1488	902	880

<그림 1> 구례 지역의 단모음 공간 구조와 단모음별 포먼트 평균값

<그림 1>은 구례 지역의 단모음 공간 구조와 단모음별 포먼트 평균값을 세대와 성별별로 제시한 것이다. 노년층의 /ㅔ/, /ㅐ/는 다른 단모음에 비해 모음 간 거리가 가깝기는 하지만 별도의 모음 공간을 가진다. 이와 달리 청소년층은 /ㅔ/, /ㅐ/가 독립적 공간을 갖지 못하고 겹쳐 있는 구조를 보여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각 그룹별(노년층 남성, 노년층 여성, 청소년층 남성, 청소년층 여성)로 /ㅔ/, /ㅐ/에 따라 nF1, nF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mixed-effects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성 여부에 따라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9] 그 결과 노년층 남성(p<.001)과 노년층 여성(p<.01)은 /ㅔ/, /ㅐ/에 따라 nF1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비해 청소년층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ㅔ/, /ㅐ/에 따른 nF2는 노년층 남성(p<.01)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그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구례 노년층은 /ㅔ/, /ㅐ/를 변별하는데 비해 청소년층은 두 모음을 구분하지 못한다.

구례 지역의 /ㅔ/, /ㅐ/ 실현 양상은 방언 변화에 보수적인 섬진강 유역의 특성이 현재까지도 유효함을 함의한다. 전술하였듯 전남은 방언의 변화에 있어 개신파의 물결이 '서부 → 동부'의 방향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전남 방언은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에 비해 방언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ㅔ/, /ㅐ/ > /E/'의 변화 역시 전남 동부 지역이 서부에 비해 더디게 반영되었겠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 변화는 동부의 순천 지역 노년층에게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영우 2018). 그런데 순천과 맞닿은 구례 지역은 예외적으로 /ㅔ/, /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진강 유역의 전이지대가 방언적 보수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례 지역의 /ㅔ/, /ㅐ/ 변별은 전이지대의 방언 특성을 보여 주지만 그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염두에 둘 사항이 있다. 먼저 구례 지역의 /ㅔ/, /ㅐ/ 변별은 노년층에 한정되므로 이는 방언 변화의 보수성을 보여 주는 현상임과 동시에 세대를 변수로 한 일종의 방언 변화에도 해당된다.[10] 또한 구례 지역의 /ㅔ/, /ㅐ/ 변별에 관한 변화는 세대 간 차이에 국한되며, 노년층과 청소년층 각각은 두 모음에 관한 음운론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례 노년층은 이전 시기부터 /ㅔ/, /ㅐ/를 변별하던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세대 내 변화가 없고, 구례 청소년층은 두 모음을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ㅔ/, /ㅐ/에 관한 음운론적 변화가 없다. 즉, 구례 지역의 노년층과 청소년은 /ㅔ/, /ㅐ/에 관한 변별 여부가 세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세대 내의 음운론적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례 노년층의 /ㅔ/, /ㅐ/는 음운론적 변화가 없지만 '/ㅔ/, /ㅐ/ > /E/'의 변화 방향성에 점진적인 영향을 받아 음성적 차원에서 일부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ㅔ/, /ㅐ/ > /E/'는 하위 방언권에 따른 적용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전남 방언 전역에 적용되는 흐름이다. 따라서 구례 지역 역

9) 각 그룹별로 /ㅔ/, /ㅐ/에 따라 nF1, nF2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회귀분석 통계 모델은 lmer(nF1 ~ vowel*group+(1|subject), data = eq), lmer(nF2 ~ vowel*group+(1|subject), data = eq)와 같다. vowel은 단모음 유형을, group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그룹을, subject는 개별 피험자를, eq는 /ㅔ/와 /ㅐ/로 구성된 데이터 묶음을 뜻한다.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각 그룹별로 /ㅔ/, /ㅐ/를 nF1, nF2에 의해 변별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체 통계량을 제시하지 않고 핵심적인 통계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광양과 하동 지역의 /ㅔ/, /ㅐ/에 관한 통계 모델은 구례 지역과 동일하므로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겠다.

10) 방언과 관련된 일부 논의에서는 젊은 세대에게서 관찰되는 방언의 변화를 예외적 유형으로 처리하거나 비전형적 현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장년층, 노년층과 함께 해당 방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집단 중 하나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방언 변이나 변화는 1~2세대 후 해당 지역의 전형적 방언으로 정착할 수도, 이전 세대 형식으로 돌아갈 수도, 혹은 중도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시 시기상의 문제일 뿐 '/ㅔ/, /ㅐ/ > /E/'가 언젠가는 적용될 것인데, 이 변화의 점진적 영향으로 인해 노년층의 /ㅔ/, /ㅐ/ 간 거리가 다른 모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덧붙여 구례 노년층의 /ㅔ/, /ㅐ/ 공간 구조로 미루어 보아 '/ㅔ/, /ㅐ/ > /E/' 변화는 성별에 따라 속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 노년층 남성은 노년층 여성과 달리 /ㅔ/, /ㅐ/에 따른 nF2 차이도 유의했는데, 이는 두 모음의 공간 구조적 분리성을 높이기 위해 /ㅐ/의 nF1을 높임에 따라 조음구조상 /ㅐ/의 nF2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구례 노년층 남성은 노년층 여성에 비해 /ㅔ/, /ㅐ/의 공간 구조적 구분이 더 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ㅔ/, /ㅐ/의 공간 구조적 차이는 두 모음 간 거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클리디안 거리식(euclidean distance)을 기반으로 /ㅔ/, /ㅐ/ 간 거리를 측정한 후 구례 노년층의 성별에 따라 모음 간 거리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11] 이 결과는 구례 노년층 남성이 노년층 여성에 비해 '/ㅔ/, /ㅐ/ > /E/'의 변화 속도에 있어 저항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준다.

구례 지역의 단모음은 음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음성적 차원에서도 보수적 특성과 변이를 동시에 보여 준다. 단모음의 공간 구조에서 나타나는 보수성과 변이는 /ㅗ/와 /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ㅜ/, /ㅗ/는 고저 위치에 의해 변별되는 모음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ㅜ/의 전방화와 /ㅗ/의 고모음화로 인해 두 모음이 nF2를 기준으로 대립하는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ㅜ/, /ㅗ/의 공간 구조 변화는 표준 발음의 지표가 되는 아나운서 집단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다양한 방언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신우봉 2015, 이향원 외 2017, 이나라 2023), 전남 서부・동부 지역의 젊은 세대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하영우・신우봉 2018, 하영우 2018, 하영우 2019). 그러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례 지역은 /ㅜ/, /ㅗ/가 대체로 nF1을 기준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각 그룹별로 /ㅜ/, /ㅗ/가 nF1, nF2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성에 여부에 따라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12] 그 결과 /ㅜ/, /ㅗ/는 모든 그룹에서 nF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노년층 남성: p<.001, 노년층 여성: p<.001, 청소년층 남성: p<.001, 청소년층 여성 : p<.01), nF2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례 지역은 세대나 성별과 관계없이 /ㅜ/, /ㅗ/가 nF1을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은 음성적 차원에서 이 지역의 방언적 보수성을 보여 준다. 전국 대부분의 방언권이 그렇듯 전남 방언권 역시 젊은 세대(특히 여성)를 중심으로 /ㅜ/, /ㅗ/가 nF2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nF2에 의한 /ㅜ/, /ㅗ/의 공간 구조화는 구례 지역의 노년층은 물론 청소년층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ㅜ/, /ㅗ/의 공간 구조에 관한 본유적 대립 구조가 구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

11) 구례 노년층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ㅔ/, /ㅐ/ 간 거리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모델은 lmer(uc_distance~group+(1|subject), data = eq_uc)였다. 'uc_distance'는 피험자를 통제한 상태에서 계산된 토큰별 모음 간 거리를, 'eq_uc'는 모음 간 거리로 구성된 데이터 집합을, group은 구례 노년층 남성과 노년층 여성을 뜻한다. 아울러 유클리디안 거리식에 적용한 실험 단어는 모두 비서술어였다. 본고의 실험 구성상 단모음 유형에 따라 '비서술어' 외에 '서술어'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단어 유형에 따른 영향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서술어'를 제외했다. 모음 간 거리 차이에 관한 통계 모델은 데이터와 그룹이 바뀔 뿐 구조는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다.

12) /ㅜ/, /ㅗ/에 따른 nF1과 nF2의 유의성 검정 통계 모델은 각각 lmer(nF1 ~ vowel*group+(1|subject), data = uo), lmer(nF2 ~ vowel*group+(1|subject), data = uo)와 같다. vowel은 단모음 유형을, group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그룹을, subject는 개별 피험자를, uo는 /ㅜ/와 /ㅗ/로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후술할 광양과 하동 지역은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였으므로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다.

히 음성적 차원의 방언 변화는 대개 젊은 세대에게 빠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ㅜ/와 /ㅗ/의 모음 공간 구조가 구례 지역의 청소년층에게서 지속된다는 것은 전이지대의 방언적 보수성이 세대를 가로질러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구례 청소년층의 /ㅜ/, /ㅗ/는 노년층과 비교해 볼 때 점진적인 모음 공간 구조의 변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례 지역의 /ㅜ/, /ㅗ/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청소년층은 노년층에 비해 두 모음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ㅜ/, /ㅗ/ 간 거리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노년층 남성과 청소년층 남성(p<.001), 노년층 여성과 청소년층 여성(p<.001)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례 청소년층의 /ㅜ/, /ㅗ/ 간 거리가 노년층에 비해 가까워지는 것은 nF1을 기준으로 한 두 모음의 변별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모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ㅜ/, /ㅗ/가 'nF1 > nF2'로 공간 구조가 변이되는 중간 과정으로 추정된다.

/ㅜ/, /ㅗ/와 달리 /ㅓ/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 모음 공간의 변이가 명료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전남 방언의 /ㅓ/는 /ㅡ/에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데, 구례 지역 역시 특수한 음운론적 환경을 제외하고는 /ㅓ/의 위치를 중고모음 내지 중모음으로 본다(이승재 1980). 그런데 구례 청소년층의 /ㅓ/는 구례 노년층의 /ㅓ/와 비교하여 nF1은 높고 nF2는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ㅓ/의 이동으로 인해 구례 청소년층은 구례 노년층과 비교하여 /ㅡ/와 /ㅓ/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공간 구조를 갖는다. 이에 세대에 따라 /ㅡ/, /ㅓ/ 간 거리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과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년층 남성과 청소년층 남성(p<.05), 노년층 여성과 청소년층 여성(p<.05) 간 차이가 유의했다. 이는 구례 지역 청소년층의 /ㅓ/가 노년층과 달리 공간 구조적인 변이를 거쳤으며, /ㅓ/의 변이 방향성은 후설저모음화임을 말해 준다.

구례 청소년층의 /ㅓ/가 후설저모음화되었다는 사실은 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방언권에서 진행 중인 'ㅡ, ㅓ, ㅜ, ㅗ'의 연쇄적 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례 지역은 세대와 관계없이 /ㅜ/, /ㅗ/가 nF1으로 구분되어 두 모음의 공간 구조 변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데 비해 /ㅓ/의 후설저모음화는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후설중고모음의 연쇄적 변화에 있어 /ㅓ/가 /ㅜ/, /ㅗ/보다 선행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구례와 인접한 순천 지역 노년층 여성 역시 구례 청소년층과 동일하게 /ㅜ/, /ㅗ/의 변화 없이 /ㅓ/의 후설저모음화가 먼저 나타났다는 점 역시 모음의 공간 구조 변이의 순서에 대한 추정을 지지해 준다(하영우 2018).

구례 지역의 단모음 공간 구조 변이는 /ㅓ/ 외에 /ㅡ/에서도 나타난다. 구례 청소년층의 /ㅡ/는 노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nF2가 커 전방화된 구조를 갖는다. /ㅡ/의 전방화 정도성은 전설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전설도는 nF2를 기준으로 양극단 모음을 설정하여 /ㅡ/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인데(송창헌 2005, 신우봉 2018),[13] 구례 지역은 /ㅣ/와 /ㅜ/가 극단 모음이므로 /ㅡ/의 전설도는 '(/ㅡ/의 nF2 - /ㅜ/의 nF2) / (/ㅡ/의 nF2 - /ㅣ/의 nF2)'가 된다. 구례 지역의 그룹별 /ㅡ/ 전설도를 계산해 본 결과 노년층 남녀의 전설도 평균은 각각 0.277, 0.306인 데 비해 청소년층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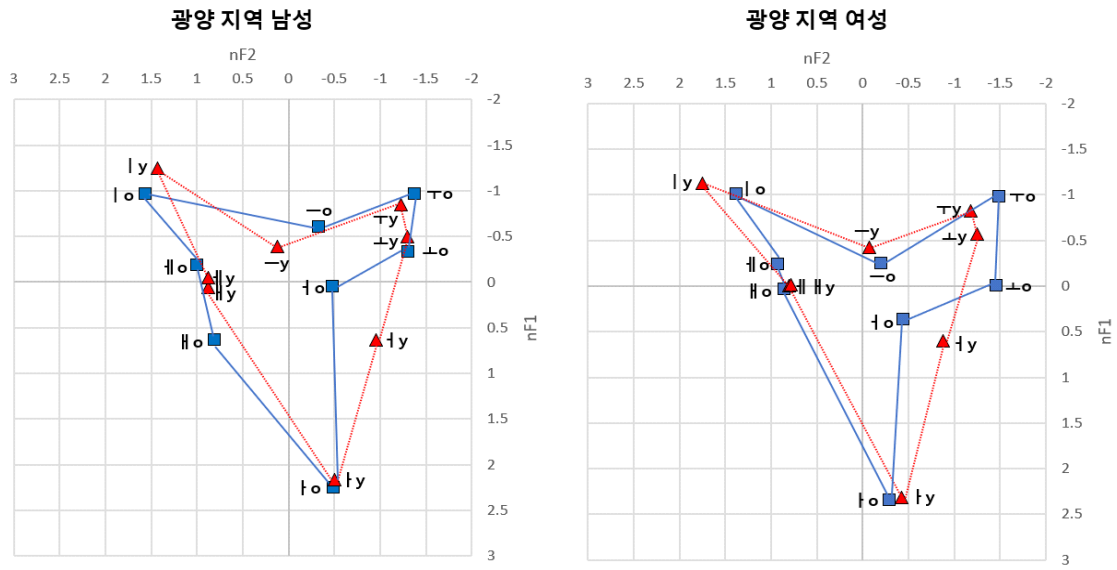
13) 신우봉(2018)은 전설도 측정에 사용되는 후설 극단 모음이 측정 집단의 모음 공간 구조에 따라 /ㅜ/ 혹은 /ㅗ/로 바뀔 수 있음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ㅜ/, /ㅗ/가 nF1을 통해서만 변별되는 집단은 후설 극단 모음이 /ㅜ/로 설정되지만 두 모음이 전후설 대립으로 공간 구조 변이를 보인 집단은 /ㅗ/의 nF2가 /ㅜ/의 nF2보다 높기 때문에 극단모음이 /ㅜ/가 아닌 /ㅗ/가 된다. 구례 지역을 포함한 섬진강 유역 방언권은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ㅜ/, /ㅗ/가 nF1에 의해서 변별되었으므로 전설도 측정에서 극단 모음은 모두 /ㅣ/와 /ㅜ/로 설정하였다.

녀의 전설도 평균은 각각 0.454, 0.435로 노년층에 비해 높았다. 구례 지역의 /ㅡ/ 전설도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과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노년층 남성과 청소년층 남성(p<.01), 노년층 여성과 청소년층 여성(p<.05)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세대를 주요 변수로 한 구례 지역 단모음의 모음 공간 구조의 변이가 /ㅓ/뿐만 아니라 /ㅡ/에서도 일어났음을 말해 준다. 아울러 구례 지역의 단모음 공간 구조 변이는 /ㅡ/가 /ㅜ/, /ㅗ/ 변이에 선행함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섬진강 유역 중 구례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노년층이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의 8모음 체계, 청소년층이 /ㅣ, E, ㅡ, ㅓ, ㅏ, ㅜ, ㅗ/의 7모음 체계로 설정된다.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상실한 것과 달리 /ㅔ/, /ㅐ/의 변별은 구례 지역 노년층에 있어 현재까지 유효한 점이 음운론적 측면의 특징이다. 음성적 차원에서는 /ㅜ/, /ㅗ/의 공간 구조가 세대와 관계없이 nF1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구조적 보수성을 가지지만 청소년층은 모음 간 거리가 좁아지는 변이 과정에 놓여 있다. 아울러 /ㅓ/의 후설저모음화와 /ㅡ/의 전방화는 세대를 주요 변수로 하여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3.2.2. 광양 지역

광양 지역의 전통적인 단모음 체계는 앞서 살펴본 /ㅟ/, /ㅚ/를 제외하면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의 8모음 체계로 설정된다. 여타의 전남 하위 방언권과 달리 광양 지역이 /ㅔ/, /ㅐ/의 변별을 유지하는 것은 구례와 함께 전남 동부의 끝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방언지리적 특성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실제로 광양 지역은 /ㅔ/, /ㅐ/의 구분이 구례와 동일하게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세대	성별	포먼트	단모음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광양	노년층	남	F1(Hz)	284	407	539	342	447	797	283	383
			F2(Hz)	2303	1990	1890	1272	1185	1182	695	738
		여	F1(Hz)	304	424	470	425	529	836	308	459
			F2(Hz)	2561	2279	2235	1572	1421	1517	781	797
	청소년층	남	F1(Hz)	284	431	420	382	497	675	329	368
			F2(Hz)	2176	1892	1892	1496	943	1177	805	770
		여	F1(Hz)	392	557	554	495	645	897	437	473
			F2(Hz)	2723	2143	2131	1597	1112	1386	921	881

<그림 2> 광양 지역의 단모음 공간 구조와 단모음별 포먼트 평균값

광양 지역의 /ㅔ/, /ㅐ/ 실현 양상은 전남 동부의 방언적 보수성이 음운 측면에서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광양 지역의 방언 보수성은 구례와 동일하게 노년층에게만 한정된다. 노년층은 단모음 체계 내에 /ㅔ/, /ㅐ/를 변별 음소로 두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ㅔ/, /ㅐ/ > /E/'의 변화를 저지하고 있지만 청소년층은 두 모음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양 지역 청소년층의 단모음 체계는 노년층과 달리 /E/를 포함한 7모음 체계로 설정이 된다. 광양 지역의 세대에 따른 단모음 체계 차이는 방언의 변화가 세대를 변수로 적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다만 광양 지역의 '/ㅔ/, /ㅐ/ > /E/' 변화는 세대를 변수로 한 사회언어학적 변화일 뿐 광양 청소년층의 변화는 아니다. 광양 청소년층은 /ㅔ/, /ㅐ/가 변별되는 8모음 체계에서 '/ㅔ/, /ㅐ/ > /E/'가 적용된 7모음 체계로 변화한 것이 아닌 애초 두 모음을 구분하지 않는 7모음 체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양 노년층은 남녀 모두 /ㅔ/, /ㅐ/를 변별하고 있지만 성별을 변수로 한 음성적 차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광양 노년층 여성과 달리 노년층 남성이 /ㅔ/, /ㅐ/를 nF1뿐 아니라 nF2에 의해서도 구분하고 있다는 데서 검증이 가능하다. 광양 노년층 남성의 /ㅔ/, /ㅐ/가 nF2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구례 노년층 남성과 동일하다. 즉, /ㅔ/와 /ㅐ/가 공간 구조적 독립성을 보다 크게 가짐에 따라 nF1이 증가하게 되면, 조음구조적으로 /ㅐ/의 nF2도 비례하여 감소하기 때문이다.

광양 노년층이 성별에 따라 /ㅔ/, /ㅐ/의 공간 구조에 차이가 있음은 두 모음의 거리 간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양 노년층의 /ㅔ/, /ㅐ/ 간 거리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클리디안 거리식을 바탕으로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광양 노년층의 /ㅔ/, /ㅐ/ 간 거리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년층 남성일 때 거리가 더 멀었다(p<.01). 이는 /ㅔ/, /ㅐ/의 공간 구조에 있어 광양 노년층 남성이 노년층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언 보수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광양 지역의 단모음은 음성적 차원에서 이전 방언 구조의 유지와 변이를 동시에 보여 준다. 광양 지역의 방언적 보수성은 /ㅜ/, /ㅗ/의 모음 공간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 지역의 /ㅜ/, /ㅗ/는 세대와 성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공간 구조적으로 nF1을 기준으로 한 고저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 그룹별로 /ㅜ/, /ㅗ/에 따라 nF1, nF2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수행했으며, 유의성에 따라 사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nF1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노년층 남성: p<.001, 노년층 여성: p<.001, 청소년층 남성: p<.001, 청소년층 여성: p<.01), nF2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전남을 비롯한 전국 방언권에서 /ㅜ/, /ㅗ/가 nF2를 기준으로 공간 구조가 구분되는 일반적 변이 양상과 결을 달리한다. 특히 청소년층이 성별과 관계없이 두 모음을 고저로 구분하는 점은 광양 지역의 방언 보수성이 세대를 가로질러 음성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광양 청소년층의 /ㅜ/, /ㅗ/는 보수적인 모음 공간 구조를 보이지만 구례의 청소년층과 동일하게 점진적인 변이의 과정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광양 지역의 /ㅜ/, /ㅗ/는 모두 nF1을 기준으로 변별되지만 세대와 성별에 따라 두 모음 간 거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층 여성은 노년층 여성에 비해 /ㅜ/, /ㅗ/ 간 거리가 매우 가깝다. /ㅜ/, /ㅗ/ 간 거리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노년층 여성과 청소년층 여성 간 /ㅜ/, /ㅗ/ 거리가 달랐다(p<.05). 이는 광양 지역의 청소년층 여성은 /ㅜ/, /ㅗ/의 공간 구조적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에 진입하였음을 말해 준다.

/ㅜ/, /ㅗ/와 달리 세대에 따른 /ㅓ/의 공간 구조 차이는 광양 지역의 단모음에 관한 음성적 차원의 변이를 보여 준다. 광양 노년층과 대비하여 광양 청소년층은 /ㅓ/의 nF1 증가와 nF2 감소로 인해 후설저모음에 위치해 있다. 광양 지역의 세대 간 /ㅓ/의 공간 구조 변이는 /ㅡ/와 /ㅓ/ 간의 거리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ㅡ/, /ㅓ/ 간 거리가 성별과 세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분석결과 노년층 남성과 청소년층 남성(p<.001), 노년층 여성과 청소년층 여성(p<.05)이 /ㅡ/, /ㅓ/ 간 거리가 달랐다. 이는 구례와 동일하게 광양 지역의 /ㅓ/ 역시 음운론적 차원의 변화는 없지만 음성적 차원에서 세대를 중심으로 모음의 공간 구조가 변이했음을 보여 준다.

/ㅓ/와 마찬가지로 /ㅡ/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음성적 차원의 공간 구조 변이가 나타난다. /ㅡ/의 공간 구조 변이는 전방화의 양상을 보이는데, 광양 청소년층 /ㅡ/는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nF2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세대에 따른 /ㅡ/의 전방화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성별과 세대에 따라 /ㅡ/의 전설도가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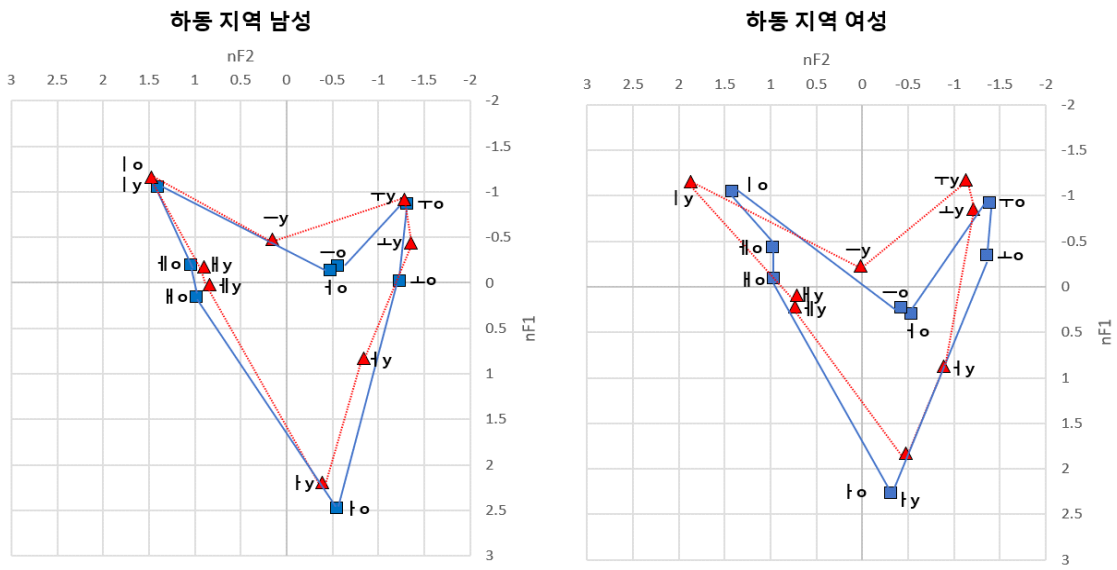
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했으며, 사후분석 결과 남성만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p<.01). 구례 지역과 달리 광양 지역의 /ㅡ/ 전설도가 여성의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광양 노년층 여성의 /ㅡ/가 전설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광양 청소년층 여성의 /ㅣ/가 전설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광양 청소년층 여성의 /ㅣ/는 노년층 여성의 /ㅣ/에 비해 다소 전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설도의 계산식상 광양 청소년층 여성과 노년층 여성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14] 다만 /ㅡ/의 전방화는 광양 지역의 여성 간 세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뿐 /ㅡ/의 분포상 광양 청소년층 여성도 다른 청소년층과 동일하게 전방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섬진강 유역 중 광양 지역은 구례와 동일하게 노년층이 8모음 체계로, 청소년층이 7모음 체계로 설정된다.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잃은 데 비해 /ㅔ/, /ㅐ/는 노년층에 한해 현재까지도 변별이 유지되고 있다. 단모음의 공간 구조의 변이 역시 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ㅜ/, /ㅗ/는 세대와 관계없이 고저 위치와 관련된 nF1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청소년층은 두 모음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ㅓ/의 후설저모음화와 /ㅡ/의 전설화는 청소년층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ㅡ/ 전설도에 세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3. 하동 지역

하동은 경남 방언에 속하지만 단모음 체계에 있어 구례, 광양과 함께 /ㅔ/, /ㅐ/의 변별을 공유한다. 그러나 전남에 속하는 섬진강 유역 방언권이 /ㅡ/, /ㅓ/의 변별에 이견이 없는 데 비해 하동 지역은 두 모음의 변별 여부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례, 광양 지역과 달리 하동 지역은 /ㅔ/, /ㅐ/는 물론 /ㅡ/, /ㅓ/의 구분에 관한 음운론적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

14) 광양 청소년 여성층에게서 나타난 /ㅣ/의 상대적 전방화는 하동 지역 청소년층 여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성 집단의 세대별 /ㅣ/의 nF2 차이가 또 다른 모음 공간 구조의 변이인지는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겠다.



지역	세대	성별	포먼트	단모음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하동	노년층	남	F1(Hz)	286	390	435	398	392	721	306	413
			F2(Hz)	2076	1899	1870	1160	1123	1129	759	798
		여	F1(Hz)	358	459	510	572	579	889	378	470
			F2(Hz)	2420	2175	2173	1391	1330	1452	850	866
	청소년층	남	F1(Hz)	329	489	463	421	596	786	363	424
			F2(Hz)	2152	1832	1863	1490	986	1208	763	730
		여	F1(Hz)	379	611	589	535	721	884	374	427
			F2(Hz)	2732	2081	2069	1665	1143	1385	1001	959

<그림 3> 하동 지역의 단모음 공간 구조와 단모음별 포먼트 평균값

<그림 3>은 하동 지역의 단모음 공간 구조와 단모음별 포먼트 평균값을 세대와 성별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먼저 하동 지역의 /ㅔ/, /ㅐ/는 구례, 광양과 유사하게 세대에 따라 분포가 다르다. 하동 노년층은 /ㅔ/, /ㅐ/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각각의 독자적 공간을 갖는 데 비해 하동 청소년층은 두 모음이 겹쳐 있거나 nF1 값이 역전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하동 지역의 각 그룹별로 /ㅔ/, /ㅐ/가 nF1, nF2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성 여부에 따라 사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동 지역 노년층의 /ㅔ/, /ㅐ/는 남성(p<.001)과 여성(p<.01) 모두 nF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데 비해 청소년층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ㅔ/, /ㅐ/에 따른 nF2 차이는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구례, 광양과 함께 하동 지역 역시 노년층에 한정하여 /ㅔ/와 /ㅐ/를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층은 두 모음이 /E/로 합류한 체계임을 말해 준다.

/ㅔ/, /ㅐ/는 하동을 포함한 섬진강 유역의 노년층에게서 공통적으로 변별되고 있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다. 구례, 광양 지역은 노년층 남성의 /ㅔ/, /ㅐ/가 nF2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하동 노년층 남성은 두 모음의 nF2에 차이가 없다. 또한 구례, 광양 지역은 노년층의 성별에 따라 /ㅔ/, /ㅐ/ 간 거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하동 지역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노년층이 /ㅔ/, /ㅐ/를 변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간 구조의 안정성(거리)이 하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ㅔ/, /ㅐ/ 간 거리가 구례, 광양, 하동 노년층 남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5] 사후 분석 결과 광양-구례, 구례-하동 간 차이는 없었으나 광양-하동 간 /ㅔ/, /ㅐ/ 거리 차이는 유의했다(p<.05). 개별 지역에 따른 노년층 남성의 /ㅔ/, /ㅐ/ 간 거리 차이는 두 모음의 변별과 별개로 단모음 공간 구조의 보수성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해 주며, 그 경향은 '광양 ≧ 구례 ≧ 하동'과 같다.

다음으로 하동 지역의 /ㅡ/, /ㅓ/ 변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동 지역의 /ㅡ/, /ㅓ/ 변별은 세대를 기준으로 /ㅔ/, /ㅐ/와 정반대 양상이다. 하동 청소년층은 성별과 관계없이 /ㅡ/, /ㅓ/가 각기 별도의 모음 공간을 갖는 데 비해 노년층은 남녀 모두 두 모음이 한 공간에 겹쳐 있다. 이에 하동 지역의 각 그룹별로 /ㅡ/, /ㅓ/가 nF1, nF2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성에 여부에 따라 사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노년층 남녀는 모두 /ㅡ/, /ㅓ/에 따른 nF1, nF2가 유의하지 않다. 반면 청소년층 남녀는 성별과 관계없이 두 모음에 따른 nF1(청소년층 남성: p<.001, 청소년층 여성: p<.001)과 nF2(청소년층 남성: p<.001, 청소년층 여성: p<.001)가 모두 유의했다. 즉, 하동 노년층은 /ㅡ/와 /ㅓ/를 변별하지 못하는 데 비해 하동 청소년층은 두 모음을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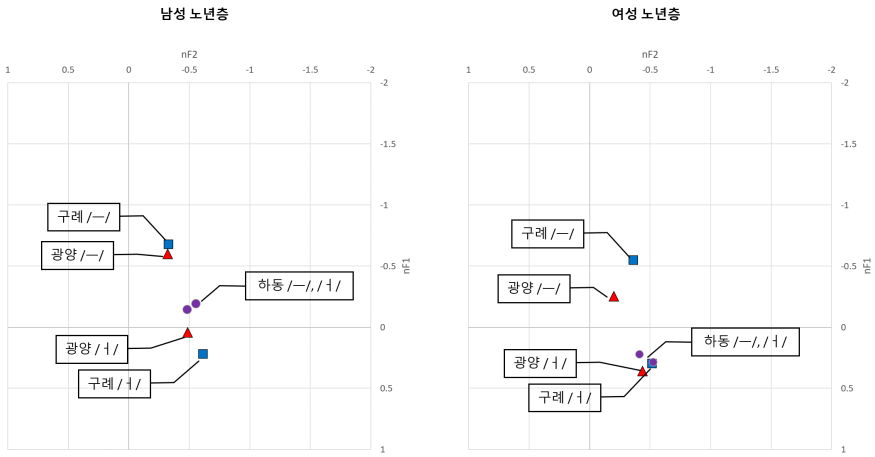
하동 청소년층이 /ㅡ/, /ㅓ/를 구분하는 것은 전이지대의 방언적 특성이 아닌 표준어화 내지 표준어 지향성의 결과로 해석된다. 하동을 포함한 경상 지역 일대는 /ㅡ/, /ㅓ/를 변별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언 특성이었으나 최근 젊은 세대는 거의 대부분 두 모음을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16] 아울러 하동 노년층이 /ㅡ/, /ㅓ/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섬진강 유역 방언권 내에서도 하동 지역이 구례, 광양과는 다른 경남 방언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명료히 보여 준다.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노년층은 모두 /ㅔ/, /ㅐ/를 구분하는 접경 지대의 공통적 특성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구례, 광양과 달리 하동 지역 노년층은 경남 방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ㅡ/, /ㅓ/를 변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동 노년층의 /ㅡ/, /ㅓ/의 비변별은 하동 지역이 일반적인 경남 방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전통적 인식과 달리 단모음 체계의 고유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덧붙여 하동 지역 노년층의 /ㅡ/와 /ㅓ/ 분포상 두 모음은 /ㅡ/보다는 /ㅓ/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는 노년층에 한정하여 성별에 따른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의 /ㅡ/, /ㅓ/ 분포 양상을 제시한 것인데, 하동 노년층의 /ㅡ/와 /ㅓ/는 /ㅡ/보다는 /ㅓ/에 가깝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

15)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의 노년층 남성의 /ㅔ/, /ㅐ/ 간 거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통계 모델은 lmer(uc_distance~local+(1|subject), data = gkh_equc)이었다. 'gkh_equc'은 구례, 광양, 하동 지역 노년층 남성의 /ㅔ/, /ㅐ/ 간 유클리디안 거리로 구성된 데이터이며, 'local'은 지역을 뜻한다.

16) 경상 지역의 젊은 세대는 일반적으로 /ㅡ/와 /ㅓ/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혜진 2006, 김보미 2016, 황미경 2000).



<그림 4>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의 성별에 따른 /ㅡ/, /ㅓ/ 분포

한편 하동 지역은 세대에 따라 /ㅔ/, /ㅐ/와 /ㅡ/, /ㅓ/가 음운론적 차원의 체계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모음의 공간 구조에 관한 음성적 차원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하동은 구례, 광양과 동일하게 /ㅜ/, /ㅗ/가 세대와 관계없이 nF1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분포한다. 이에 각 그룹별로 /ㅜ/, /ㅗ/에 따라 nF1, nF2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수행했으며, 유의성에 따라 사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그룹에서 /ㅜ/, /ㅗ/가 nF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노년층 남성: $p<.001$, 노년층 여성: $p<.001$, 청소년층 남성: $p<.001$, 청소년층 여성: $p<.001$), nF2는 차이가 없었다. 즉, 구례, 광양과 함께 하동 지역의 /ㅜ/, /ㅗ/는 nF1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공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ㅗ/, /ㅜ/의 공간 구조는 구례, 광양과 동일하게 하동 역시 세대를 중심으로 모음 간 거리에 차이가 있다. 하동 지역의 /ㅜ/, /ㅗ/ 간 거리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 결과 노년층 남성과 청소년층 남성 간 차이만 유의했다($p<.05$). 다만 하동 청소년층 여성의 /ㅜ/, /ㅗ/는 구례, 광양과 비교하여 세대 간 차이가 다를 뿐 모음의 공간 구조상 거리가 가까워지는 음성적 변이의 방향성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하동 지역의 /ㅡ/, /ㅓ/에 관한 공간 구조적 특성은 노년층이 두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므로 /ㅓ/의 후설 저모음화나 /ㅡ/의 전방화에 관한 세대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동 노년층의 /ㅡ/, /ㅓ/가 구례, 광양 지역 노년층의 /ㅓ/에 가깝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하동 청소년층의 /ㅓ/와 /ㅡ/의 공간 구조적 특성과 변이는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동 청소년층의 /ㅓ/는 노년층의 /ㅡ/, /ㅓ/와 대비하여 nF1 증가와 nF2 감소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하동 청소년의 /ㅡ/는 노년층의 /ㅡ/, /ㅓ/과 비교해 볼 때 nF2의 증가가 성별에 관계없이 관찰된다. 이는 구례, 광양 청소년층과 동일하게 하동 지역 청소년층 역시 /ㅡ/의 전방화와 /ㅓ/의 후설저모음화라는 음성적 변이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동 청소년층의 /ㅡ/와 /ㅓ/의 모음 공간 구조적 변이는 두 모음의 거리가 구례, 광양 지역 청소년층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서도 방증된다. /ㅡ/, /ㅓ/ 간 거리가 구례, 광양, 하동 지역 청소년층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섬진강 유역 청소년층의 /ㅡ/, /ㅓ/ 변이가 지역과 관계없이 동

일한 방향으로 진행됨을 보여 준다.

정리해 보면, 섬진강 유역 중 하동 지역은 노년층이 /ㅣ, ㅔ, ㅐ, ㅓ(ㅡ), ㅏ, ㅜ, ㅗ/의 7모음 체계로, 청소년층은 /ㅣ, E, ㅡ, ㅓ, ㅏ, ㅜ, ㅗ/의 7모음 체계로 설정된다. 하동 노년층은 /ㅔ/, /ㅐ/를 변별하지만 /ㅡ/, /ㅓ/는 구분하지 못하며, /ㅡ/와 /ㅓ/는 /ㅓ/에 가깝게 조음한다. 반대로 청소년층은 /ㅔ/, /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비해 /ㅡ/와 /ㅓ/는 독립된 모음으로 조음한다. 단모음의 모음 공간 구조의 변이는 하동 청소년층에 한하여 /ㅜ/, /ㅗ/의 근접화와 /ㅡ/의 전방화, /ㅓ/의 후설 저모음화가 진행되고 있다.

5. 결론

본고는 실험음성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단모음 체계와 공간 구조의 변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례, 광양, 하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모음의 음운론적 대립 양상과 음성적 차원의 모음 공간 구조를 분석해 보았으며, 세대와 성별 변수가 이 지역의 방언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섬진강 유역의 방언권 중 구례와 광양 지역은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ㅟ/와 /ㅚ/가 단모음으로 조음된 사례를 극히 일부였으며,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조음된 경우는 주로 GV 구조이면서 어두 위치 환경일 때였다. 구례, 광양 지역의 청소년층과 하동 지역 전체는 /ㅟ/, /ㅚ/가 애초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ㅟ/, /ㅚ/는 섬진강 유역의 방언권 중 구례, 광양의 노년층에게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모음 체계 내에서 이탈하는 변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이 변화의 진척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ㅟ/, /ㅚ/와 달리 /ㅔ/, /ㅐ/는 섬진강 유역 전역에서 변별되어 이 지역이 전이지대로서 갖는 방언적 특수성이 있음을 보였다. 다만 /ㅔ/, /ㅐ/의 변별은 노년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층은 모든 지역에서 두 모음을 구분하지 못했다. /ㅔ/, /ㅐ/의 변별에 관한 섬진강 유역 방언 변화는 세대 간 차이로 정리되며, 청소년층은 애초 두 모음을 구분하지 못했으므로 세대 내 변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동 지역의 /ㅡ/와 /ㅓ/ 역시 세대 간 변화가 관찰되었다. 하동 노년층은 /ㅡ/, /ㅓ/를 구분하지 못한 채 /ㅓ/에 가까운 위치에서 해당 모음을 발음하는 데 비해 하동 청소년층은 두 모음을 명확히 변별했다. 한편 음성적 차원에서는 /ㅜ, ㅗ, ㅡ, ㅓ/의 공간 구조 변이가 세대를 주요 변수로 일어나고 있었다. /ㅜ/와 /ㅗ/는 세대와 관계없이 nF1을 기준으로 두 모음을 구분해 보수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층은 두 모음 간 근접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ㅜ/, /ㅗ/와 달리 /ㅓ/의 후설저모음화와 /ㅡ/의 전방화는 섬진강 유역 방언권의 청소년층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으며, 후설중고모음의 공간 구조 변이가 동시적 적용이 아닌 모음에 따른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확인했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2011),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기세관(2004), 광양 방언의 음운론과 형태론, 《배달말》35, 배달말학회, 5-59쪽.

김경표(2013),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은(2015),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미(2016), 부산 지역어 단모음 /ㅡ/와 /ㅓ/의 세대 간 차이, 우리말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61-75쪽.

김봉국(2011), 경남・전남 접경 지역어의 음운,《동남어문논집》1-31, 동남어문학회, 5-25쪽.

김영송(1981), 우리말 소리의 연구(고친판), 서울: 과학사.

김재문(1977), 서부경남 방언의 음운연구, 《논문집》15-1, 진주교육대학교, 91-124쪽.

김재문(1984), 경남방언과 전남방언과의 방언경계선상의 음운고찰: 모음중심, 《진주문화》5,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진주문화권연구소, 23-45쪽.

김정대(2000), 음운면에서 본 경남 방언의 구획, 《인문논총》13,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7-114쪽.

김정대(2012), 영남권 섬진강변 언어의 문화 공간적 의의, 《어문론총》57, 한국문학언어학회, 31-64쪽.

김택구(1991),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수・서상준(1983), 광양 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호남학》13,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15-170쪽.

서성원(2002), 순천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주열(1981) 전남・경남방언의 등어지대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희하・위평량(2001), 구림 지역어의 변화 : 노년층과 장년층의 음운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학》28, 전남대학교호남문화연구소, 95-115쪽.

송창헌(2005), 한국어 모음 'ㅡ'의 음가 변화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우봉(2015),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우봉(2018), 한국어 /ㅓ/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60, 겨레어문학회, 233-258쪽.

위평량(2000),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위평량(2005), 섬진강 유역 방언의 성격, 《배달말》37, 배달말학회, 27-49쪽.

이기갑(1984), 동부전남 방언의 성격,《언어학》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15-133쪽.

이나라(2023), 표준어 말소리의 변화: 지난 50년간의 아나운서 뉴스 발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재(1980), 구례 지역어의 음운 체계,《국어연구》45, 국어연구회.

이향원(2021), 운율 단위 경계에 위치한 음운의 음성적 변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향원・신우봉・신지영(2017),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말소리와 음성과학》9-2, 한국음성학회, 39-51쪽.

장혜진(2006),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영우(2018), 순천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언어와 정보 사회》3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79-405쪽.

하영우(2019),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 《민족문화연구》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77-608쪽.

하영우・신우봉(2018),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 《민족문화연구》7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99-320쪽.

황미경(2000), 부산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Kang, Yoonjung(2014),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23.

Tukey, J.(1977),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ss: Addison-Wesly.

Winter, B.(2019). Statistics for linguists: An introduction using R. Routledge.

<ABSTRACT>

A study on the vowel system change and phonetic variation of dialects in the Seomjin River basin

Ha, You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honological system and phonetic variation of vowels in the dialect area of the Seomjin River basin based on the experimental phonetic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sentence read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targeting Gurye, Gwangyang, and Hadong regions, and vowel pronunciation and forma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Gurye and Gwangyang regions, /ㅟ/ and /ㅚ/ were rarely pronounced as monophthong, and in the Hadong region, /ㅟ/ and /ㅚ/ did not exist as monophthong. /ㅔ/ and /ㅐ/ are distinguished in the Gurye, Gwangyang, and Hadong regions, but /ㅔ/ and /ㅐ/ can be distinguished only in the elderly group, and the youth group cannot distinguish between the two vowels. In addition, in the Hadong area, the older group could not distinguish /ㅡ/ and /ㅓ/, while the young group correctly distinguished two vowels. On the other hand, the monophthong of the dialects of the Seomjin River basin showed phonetic variation with generation as a variable. With the young generation as the main variable, /ㅡ/ was frontalized, and /ㅓ/ showed an increase in nF1 and a decrease in nF2. However, not all phonetic variations of vowels appeared with generation as a variable. Regardless of generation, the fact that /ㅜ/ and /ㅗ/ are distinguished by nF1 shows the dialectal conservatism of the Seomjin River basin dialect.

■ **주제어** : 섬진강 유역 방언, 전이지대, 단모음 체계, 방언 변화, 세대
Seomjin River basin dialect, transitional area, vowel system, dialect change, generation

하영우
소　　속 :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전자우편 : neozionistgo@jj.ac.kr

논문 접수 : 2023. 08. 20.
논문 심사 : 2023. 10. 03.
게재 결정 : 2023. 10. 04.
논문 발행 : 2023. 10. 11.